

뉴진스 키운 민희진과 하이브 갈등 왜?

민 "방시혁 의장, 뉴진스 카피 걸그룹 만들어" 하 "회사 경영권 탈취 시도"... 전격 감사 착수

국내 1위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K팝 시장에서 '가장 잘나가는' 걸그룹 뉴진스를 발굴·제작한 민희진 아도어 대표가 갈등을 빚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강조한 하이브에서 본사와 산하 레이블 간의 이런 갈등은 유례가 없기에 당장 컴백을 앞둔 뉴진스에 끼칠 파장에도 시선이 모인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가 이날 오전 민희진 대표와 또 다른 경영진 A씨 등을 대상으로 전격 감사에 착수한 명분은 '경영권 탈취 시도'다.

현재 아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 A씨가 투자자를 유치하려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하고, 하이브가 보유한 아도어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고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으로 맞받아쳤다.

아일릿은 음원 공개 당시 5인조 구성과 뮤직비디오 일부 장면 등이 뉴진스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아일릿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을 했다"며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는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이라는 레이블 혼자 한 일이 아니며 하이브가 관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일릿을 염두에 둔 듯 '아

류'라는 강한 어휘까지 사용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 대표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시대, 샤이니, 엑스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와 브랜드를 맡아 독창적인 색깔과 표현으로 가요계에서 명성을 얻은 스타 제작자다.

민 대표는 K팝 시장에서 활약하면서 결과물에 대해 완벽함을 도모하는 태도나 거침없는 화법 등이 종종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가요계에서는 공식적인 감사 사유인 '경영권 탈취 의혹' 외에도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특히 그가 작년 1월 씨네21과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쉽게 '하이브 자본'을 외치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표현"이라고 말한 대목은 많은 해석을 낳았다.

'뉴진스 성공신화'의 원동력을 '1위 기획사 하이브'의 역량이 아닌 아도어 혹은 자신에게 돌린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민 대표는 당시 "투자금이 결정돼 투자가 성사된 이후의 실제 세부 레이블 경영 전략은 하이브와 무관한 레이블의 독자 재량이기도 하거나 난 당시 하이브 외에도 비슷한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시 내게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었고, 투자처가 어디든 '창작의 독립'·'무간섭' 조항은 1순위였을 것이라 사실 꼭 하이브여야 할 이유도 없었다"라고도 했다.



민희진 아도어 대표.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민 대표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만, 독창적 능력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이날 감사에 돌입하면서 아도어 측 자산 확보하는 한편, 민 대표 측에 사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뉴진스가 일궈 온 문화적 성과를 지키고, 더 이상의 카피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전산

자료 분석을 통한 '물증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뉴진스는 다음 달 24일 새 싱글 발표를 앞두고, 당장 이달 27일 신곡 '버블검'(Bubble Gum) 뮤직비디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민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과 활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에 컴백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조사 결과를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늘 개봉 '범죄도시 4' 1위 자리 노린다

22일 예매 관객 수 44만명... 예매율 90% 기록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쿵푸팬더 4'가 지난 주말 관객 수는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경쟁작 부재로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켜냈다.

2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쿵푸팬더 4'는 19~21일 28만2000여 명(매출액 점유율 43.7%)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124만여 명이다.

총선 공휴일인 이달 10일 극장에 걸린 이 영화는 개봉일 하루에만 42만9000여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개봉 첫 주말 사흘간 40만8000여 명을 불러들이는 데 그쳤고, 지난 주말에는 이보다도 12만

여 명이 감소했다.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하는 오는 24일부터는 일일 박스오피스 1위 자리도 내출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도시 4'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예매 관객 수 44만여 명, 예매율 90.6%를 기록하고 있다.

'천만 영화'에 오른 뒤에도 뒷심을 내는 중인 '파묘'는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2위에 자리했다. 10만5천여 명(17.7%)을 더해 누적 관객 수는 1천178만여 명으로 늘었다.

3위는 재개봉한 일본 멜로 영화 '남은 인생 10년'으로 4만3천여 명(7.3%)을 모았다. 연합뉴스



영화 '범죄도시 4'



영화 '쿵푸팬더 4'

선우은숙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

언니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

배우 선우은숙(65)이 최근 이혼한 아내 선우은숙(61)이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달 22일 유영재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존재는 "선우은숙은 지난 3월 유영재씨와 조정 이혼한 이

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존재는 또 "선우은숙의 언니 A씨를 대리해 유영재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제출했다"며 "유영재씨가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에이핑크 '윤보미' -작곡가 '라도' 열애 중

걸그룹 에이핑크의 윤보미와 작곡가 라도가 2017년 이래 7년간 열애 중이다. 양측의 소속사는 23일 "상대측과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다만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이외에는 확인이 어렵다"고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라도는 걸그룹 스테이씨의 메인 프로듀서로, 과거 트와이스와 청하 등의 히트곡을 만든 유명 작곡가다.

라도는 특히 윤보미가 속한 에이핑크의 '내가 설렘 수 있게'와 '허쉬'(HUSH) 등의 노래를 작곡한

연인이 있다.

윤보미는 이날 팬 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려 "많은 곡 작업을 함께 하면서 서로 좋은 감정이 생겨 연애를 시작해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교제 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1:10 시사기획 창(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 7:00 TV 유치원 7:30 생생정보 스페셜 8: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10:00 KBS 아침 뉴스타임 10:20 인강극장 스페셜 11:00 실랑이는 남자(재) 11:30 토티토티 꼬꼬 새로운 팀업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세 번째 결혼(재) 8:30 TV 전국시대 9:25 우리 지역에 살아요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꾸러기 식사교실(재) 11:15 주니토니 이야기 11:30 토티토티 꼬꼬 새로운 팀업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은이집 9:55 SBS 10 뉴스 10:30 실랑이는 오늘 11:00 예나그날리 11:30 한국사 대모험	8:20 안전초코 핫초코 9:50 뽀롱뽀롱 부부맨 8:20 탐구대사 개칭임 12:10 민국 건문록 15:15 클래식 e 16:50 도래미 프렌즈 쇼츠 17:40 디아노스터 공룡수호대 18:10 EBS 뉴스 19:20 고향만남
12:00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킹특선 지명수배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열린채널 15:10 어린이동물터너(재) 15:40 필도발상 스페셜(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17:30 탐나는 제주	12:20 신상출시 편스토랑(재) 13: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인법(재) 15:30 TV 유치원(재) 16:00 스투디오 K 스페셜 16:30 영상결혼 산(재) 17:00 새콤달콤 캐치 티너깽 17:15 나니 뭐하니 2 17:30 풀집 영화가 좋다	12:00 12 MBC 뉴스 12:25 장애 인식 개선 특집 대한민국 재해기록 표류기 1부 13:25 분분분분 좋아좋아 스페셜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PD수첩(재)	12:00 SBS 12 뉴스 12:50 글 매리는 그녀들(재) 14:00 수비비킹 16:00 꾸러기 탐구생활(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리라의 트롯영어 스페셜	8:30 나혼자 여행지도 9:00 KCTV 뉴스 9:30 KCTV 다크스페셜 10:30 삼비킹 13:10 KCTV 다크스페셜 14:00 블링레슨 퍼펙트 15:10 알면 알수록 짝있는 그런 역사 18:00 블링레슨 퍼펙트 18:30 나혼자 여행지도 20:10 KCTV 다크스페셜
18:00 6시 내고향 19:00 KBS뉴스 7 제주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수지맞은 우리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이슈 픽 앤드 함께 스페셜	18:00 KBS 뉴스 6 18:35 2TV 생생정보 19:50 피도 눈물도 없이 20:30 월드 24 20:55 월화드라마 역사 한 번 접합시다(재) 22:10 스모킹 건 23:10 아이 러브 스포츠 23:35 빈터동굴극장(재)	18:05 시사기획 이슈 잇다 스페셜 19:05 세 번째 결혼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수사반장 22:30 라디오스타	18:20 혼자서에서 스페셜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글 매리는 그녀들 22:40 명곡 챔피언십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투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5 TBN 제주대행진 18:00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 제주교통신국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4일

김홍상 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굴리만 한다고 해졌되지 않으니 주변과 함께 눈의 허만 좋다. 48년 나누면 기쁨이 두배이니 약속이나 참여할 일이 있으면 참석. 60년 불화나 논쟁이 올 수 있으니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 72년 심사가 많지 못하다. 관공서의 과대호 주의, 84년 한번 결정, 결심한 것을 변경하지 마라. 뒤에 후회하게 된다.

37년 자기주장이 강해지면 상대가 반격해온다. 49년 남과 더불어 의는 또는 협조할 일이 발생한다. 61년 취업을 둔 경우에는 많은 정보 파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낀다. 73년 평생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면 이익이 따른다. 85년 직장, 취업관련 문제와 재테크에 활동이 지체. 이상관계 미흡.

38년 주변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조건없이 도와주면 좋다. 50년 내주장이 강해지면 상대가 꺼리니 부드러운 화술이 적합하다. 62년 가정에 우환이나 문상 할일이 생기기 안부전화가 필요. 74년 돈에 이익이 있기도 하고 가야할 곳도 생긴다. 86년 사고싶은 구매 충동성이 매우 강해진다.

39년 음주나 늦은 귀가는 불리하고 행동에 장해가 따른다. 51년 귀인의 도움으로 재물을 획득하니 대인관계에 만전을 기하라. 63년 돈이 안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고달프다. 75년 갈 곳이 많고 취직이나 직업이 생긴다. 87년 직업 변화나 공부를 더 하려고 한다.

40년 위장에 탈이 오니 과식, 과음은 절제해 필요하다. 52년 급작스런 업무 증가로 바쁨이 있으니 몸 조심하고 건강관리 철저. 64년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다. 76년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뒷사람과 상의해 일을 풀어가라. 88년 이성이 찾아오고 교제를 원한다. 대화가 필요.

41년 즐거움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 허전함이 다가온다. 53년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해 나가면 성공을 보장한다. 65년 예술, 연구분야 상을 받거나 가치를 인정 받는다. 77년 가까운 사람과 헤어지거나 취임이 되려다 취소가 된다. 89년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실천하려고 움직인다.

42년 직원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은 매출을 증가시키고 이익이 창출. 54년 정신적 고통은 있어도 기쁨이 있다. 인내가 필요한 시기. 66년 이성교제나 의외의 장소에서 행운이 온다. 78년 가정사 문제로 형제간에 논쟁이 생기기 먼저 나서지 말고 관망하라. 90년 계획하는 일이 순조롭고 의욕도 강해진다.

43년 위에 무리가 오니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섭취해야. 55년 남의 말에 동요되면 실속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자기 주장이 필요한 날. 67년 이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정직함이 우선시 하는 일진이다. 79년 이성간에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헤어짐도 온다. 91년 가정이 화목하니 마음이 평화롭다.

44년 건강에 신경을 써야하고 무리한 일은 중지하라. 56년 사소한 일에 참견 끼어들기는 참아야 한다. 68년 기본대로 일을 처리하면, 다시 시작하게 된다. 80년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 일이 꼬여 어려움이 커진다. 92년 일이 호전되고 진행이 원만하다.

45년 만남이나 자녀가 찾아오니 마음이 기쁘다. 57년 계약 매매 등에 관한 일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다. 69년 내일보다 오늘 현실이 더 중요하니 변동하지 마라. 81년 직장인은 변동을 주고 싶기도 하고 변화를 원한다. 93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남을 갖는 것도 좋다.

46년 애사심 또는 동료와 원활한 관계가 생산적이다. 58년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손해가 발생한다. 현상타를 고수하라. 70년 나의 생각이 틀렸음을 스스로 인정한다. 다시금 기회가 온다. 82년 나태한 행동이 주변에서 편지를 받게 된다. 94년 솔직함과 적극성이 좋은 결실을 가져온다.

47년 주변 일부러 하나씩 풀어가야 하는 바쁜 날. 59년 무언가 나에게 불리함이 있다고 무례한 언동은 자제 필요. 71년 내 생각만 참고하는 것보다 주변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다. 83년 기본대로 일을 처리하면 실수가 연속되게 된다. 심사숙고. 95년 즐거움 외출이나 여행을 할 수 있다.